

관련 연구 활성화·국방분야 SW 집중 육성 기여

무기체계가 첨단화되면서 내장형 소프트웨어(SW)에 의해 그 성능이 좌우되는 등 국방분야에서 SW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연구단체가 창설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겸한 워크숍을 갖고 공식 출범한 국방소프트웨어연구회가 그 것.

국방소프트웨어연구회는 한국정보과학회(회장 홍진표)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중심이 돼

산·학·연·관·군의 전문가가 모여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학술 활동을 전개해 국가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국방 SW 분야의 정책수립과 SW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었다.

앞으로 국방소프트웨어연구회는 국방 테스트·형상관리·품질인증·품질관리 방법론, 국방 임베디드 SW 미들웨어·운영체제·플랫폼 기술, 국방SW 가치 창출을 위한 요구공학 방법론, 국방CBD 개발 방법론,

국방 정보보호 이론 및 SW기술 등을 주로 연구하게 된다. 한편 이날 열린 창립기념 워크숍에서는 정재원 국방기술품질원장의 특별강연과 이태공 아주대 교수·이성남 방위사업청 획득기반과장의 초청강연 등이 진행됐다.

정 원장은 특별강연에서 “핵심 성능의 대부분은 두뇌집약적 노하우가 축적된 고부가가치의 SW로 구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종 기자